

인사말

함께,  
보다.

청와대는 그동안 건물 내부에  
미술작품을 설치해 공간에 의미를  
담아왔습니다. 그 작품 중 일부를  
국민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미술작품들은  
1966년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출품 작품부터 2006년도 작품까지  
청와대가 40년에 걸쳐 수집한  
주요 작품들입니다.

때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겪어온  
역사적 장면들의 배경이 되어주었고,  
해외 주요 인사들에게는 한국을  
소개하는 작품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빛내왔습니다.

청와대가 소장한 작품들은 국민들의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스치듯  
볼 수밖에 없었던 작품들을  
공개함으로써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와대가 사랑해온 작품들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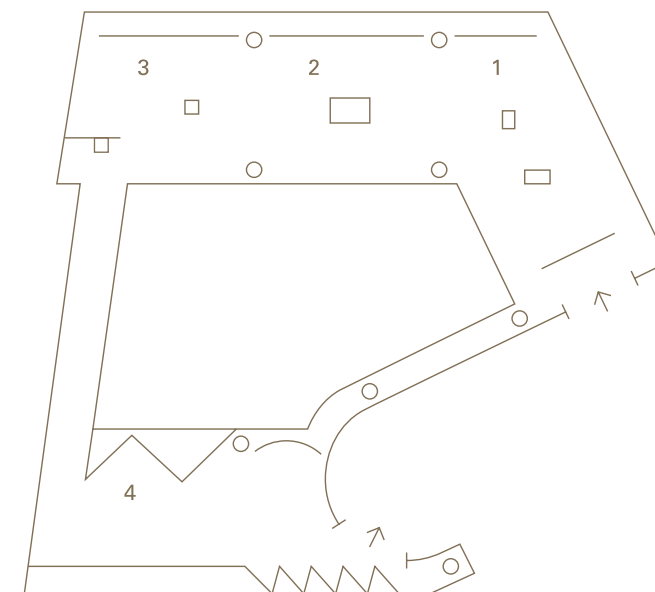


청와대  
소장품  
특별전

함께  
보다.

2018.5.9.~7.29.

전시 공간 및 안내



1.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보다.
2. 사계절을 보다.
3. 청와대를 만나다.
4. 영상 공간

장소

청와대 사랑채 1층

관람시간

화,수,목,금,토,일

\*매주 월요일 휴무

09:00~18:00

\*입장은 오후 5시 반까지 가능합니다.

입장료

무료

대한민국미술전람회를 보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약칭 국전)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대한민국 미술계의 가장 큰 연중행사이자 당시 작가들의 유일한 등용문이었습니다.

또한, 국전은 역대 대통령들이 개막식에 참석하고 청와대와 각 기관에서 출품 작품을 수집할 만큼 중요한 국가 행사였습니다.

이 섹션에서는 청와대가 소장하고 있는 대통령상 수상작과 회화, 조각 분야의 국전 출품작들을 소개합니다.



1	2
3	4

1. 이영찬, 〈풍악(風岳)〉, 1973, 한지에 수묵담채, 162.8 × 132.4 cm
2. 김수현, 〈가을의 여심〉, 1971, 브론즈, 133 × 32 × 21 cm
3. 김형근, 〈과녁〉, 1970, 캔버스에 유채, 161 × 111.3 cm
4. 손수택, 〈7월 계림〉, 1973, 캔버스에 유채, 130.2 × 161 cm

사계절을 보다.

청와대는 1978년에 영빈관을 만들었습니다.

영빈관 내부는 유럽의 건축 양식에 태극과 무궁화, 단청 등 한국적 요소를 더하여 장식하였습니다.

영빈관 2층 연회장 벽면에는 ‘사계산수도’의 전통을 반영하여 사계절 풍경화를 전시하였습니다.

이 작품들을 약 40년 만에 최초로 외부에 공개합니다.



1	
2	3

1. 유희준, 〈청와대 영빈관 내부 디자인 투시도 II〉, 1978, 하드보드지에 펜, 수채, 32 × 65 cm
2. 박광진, 〈불국사의 가을〉, 1978, 캔버스에 유채, 182.1 × 132.4 cm
3. 오승우, 〈봄〉, 1979, 캔버스에 유채, 252.5 × 165 cm

청와대를 만나다.

1991년, 현재의 청와대 본관 건물을 완공하면서 새로운 청와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본관에는 전통과 현대와의 조화를 원칙으로 거대한 벽화를 비롯한 회화, 공예품 등이 수집되었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1991년 본관 건립 시 수집한 작품들과 2006년 인왕실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한 <통영향>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1	
2	3
4	

1. 최만린, 〈O 90-4〉, 1990, 브론즈, 36.5 × 24.5 × 21, 19 × 35.5 × 18.5 cm
2. 박수학, 〈책거리〉, 1991, 한지에 채색, 182 × 281 cm
3. 서세욱, 〈백두산 천지도〉, 1990, 한지에 수묵담채, 금분, 119.8 × 159.2 cm
4. 전혁림, 〈통영향(한려수도)〉, 2006, 캔버스에 유채, 255.6 × 602.6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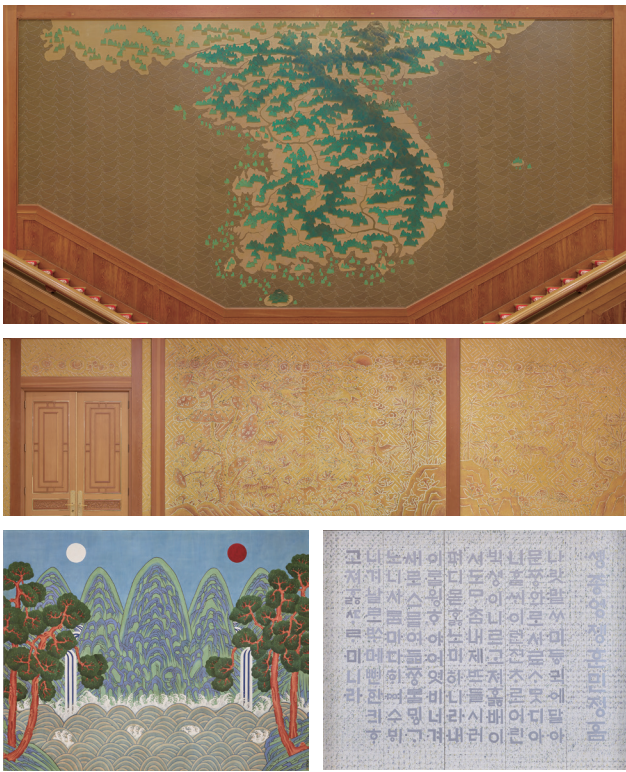
영상 공간

영상 1: 함께 보다.

청와대 건물과 내부의 작품들은 많은 이들의 고민과 열정이 빚어낸 결과물입니다. 청와대를 짓고, 내부를 꾸미고, 그림으로 채웠던 작가들의 기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2: 네 개의 벽화

청와대 본관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벽화들은 청와대를 대표하는 이미지입니다. 이 벽화들을 8m의 거대한 영상에 담아 전시장으로 옮겨왔습니다.



1	
2	
3	4

1. 김식, 〈금수강산도〉, 1991, 마지에 채색, 533 × 1,146 cm
2. 나정태, 〈심장생문양도〉, 1991, 한지에 채색, 300 × 1,000 cm
3. 송규태, 〈일월도〉, 1991, 한지에 채색, 368 × 465 cm
4. 백금남, 〈훈민정음〉, 1991, 실크스크린, 368 × 465 cm